■ 민족문화연구 제112호(2026.08.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011-029.
http://doi.org/10.17948/kcs.2026..112.011

중국어 관용 표현에 나타난 '綠(녹)'의 은유 의미 분석

장선우(張仙友)*

목 차

1. 서론
2. '綠'의 사전적 의미와 개념 은유
3. 관용 표현에서 '綠'의 은유 의미
4.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관용 표현에 내재된 중국어 색채어 '綠(lǜ, 녹)'의 은유적 의미를 분석하고, 그 의미 확장을 고찰한다. 분석은 두 가지 차원에서 진행된다. 첫째, 인지언어학의 개념적 은유 이론을 바탕으로 『현대한어사전(現代漢語詞典)』의 역대 판본에 수록된 '綠' 관련 어휘 항목을 검토한 결과, '자연/식물', '안전/통과', '낮은 지위', '쇠퇴/상실', '불안/분노'라는 다섯 가지 개념적 은유 범주가 도출되었다. 둘째, 『중국 관용어 대전(中國慣用語大全)』과 『중국 속담 대전(中國諺語大全)』, 『중국 헐후어 대전(中國歇後語大全)』 3권에서 추출한 관용 표현을 원·명 시기, 청나라, 근현대까지 연대순으로 분석하여, 각 시대의 특정 사회문화적 맥락과 유사성에 대한 인지적 인식을 통해 '綠'이 어떻게 은유적 의미를 획득하고 공고히 했는지 추적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중 하나는, 단어 층위에서 '綠' 자체만으로는 비유적 의미를 도출할 수 없는 '綠葉(녹잎)'이나 '綠磚(녹색 벽돌)'과 같은 어휘들이, 관용적으로 굳어진 구(句)의 전체적인 구조적 맥락 내에서만 명확한 비유적 의미를 드러낸다는 점이다.

*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이는 색채어의 은유적 의미가 어휘 목록에 고정된 항목이 아니라 담화적 맥락을 통해 구조적으로 생성되고 전달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주제어: 색채어, 綠(녹), 개념 은유, 관용 표현, 의미 확장

1. 서론

『說文解字』에서 '綠, 帛青黃色也(녹은 청황색 비단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綠'은 본래 독립된 원색이 아닌 청색과 황색이 혼합된 간색(間色)의 비단 빛깔을 의미했다. 당대(唐代) 관복 제도에서 '綠袍(녹색 도포)'는 하급 관리의 복색이었고, '綠綬(녹색 인끈)'는 색으로 품계를 표시하는 기능을 했다. 이 사물들이 중고시기에 비하의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녹색이 갖는 간색의 이미지와 제도가 천한 이미지를 생산하게 되었다. 근고시기에는 이러한 비하 의미가 강화되어 원대(元代)에는 제도로 '綠頭巾(녹두건)' 착용을 의무화했고, '戴綠帽子(녹색 모자를 쓰다)'는 '아내가 외도를 한 남자'라는 뜻의 관용 표현으로 정착되었다. 현대에는 어법화를 거쳐 '某人綠了某人(A가 B를 두고 바람을 피웠다)・被綠了((상대방이) 바람나다)' 등 동사 용법으로 확장되었으며, 주식 하락을 나타내는 '綠盤(하락장)・飄綠(전반적 하락세)・收綠(하락세로 마감하다)・滿屛綠(전종목 하락)' 등의 어휘도 새롭게 생겨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어 색채어 '綠(l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색채 이외의 다양한 의미를 획득해 왔다. 張少華(2016)에서는 코퍼스를 활용하여 '綠'의 형태・통사적 특징과 함께 시기별 의미 확장을 분석하였으며, 張琳麗(2020)는 어원적 본의로부터 시간순에 따른 의미 변화를 고찰하였다. 다만 이들 연구에서는 '綠'의 은유 의미를 단어 단위 층위에서 분석하고 있어, 그 의미가 '綠' 자체에 내포된 것인지 결합 성분과의 합성어 전체에 귀속되는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다. 이러한 한계는 선행 연구가 담화의 관용 표현 층위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고착되는지를 검토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綠'을 포함한 관용 표현, 즉 헐후어(歇後語)[1]와 속담(諺語)

을 중심으로 '綠'의 은유 의미가 개별 어휘 차원과 담화 맥락 층위에서 각각 어떻게 고착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오행설의 정색(正色) 계열인 '紅・黃・黑・白' 등 색채어와 달리, '綠'은 청색과 황색이 혼합된 간색(間色)에서 출발하여 폭넓게 의미가 확장된 색채어이다. 정색에 속하는 '紅'이 주로 길상(吉祥)이나 경사(慶事)와 같은 긍정적 의미로 표현되는 것과 달리, '綠'은 자연의 생명력이라는 긍정적 가치와 낮은 신분・도덕적 금기라는 부정적 가치를 동시에 지니며, 현대에는 안전(허가)과 경제(하락)라는 의미까지 추가로 획득하였다. 이처럼 상반되는 가치가 공존한다는 점에서 다른 색채어와는 구별된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어 '綠' 색채어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 '綠'의 사전적 본의에서 사회문화적 확장 의미로 변화해 가는 시기별 의미 변화 추이 과정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나아가 중국어 '綠'의 의미 확장 궤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대상은 두 범주로 구분된다. 첫째, 중국의 대표적인 사전에 등재된 '綠' 관련 어휘를 통해 기본적인 개념 은유 체계를 분석한다. 사전 수록 어휘는 언어 공동체에서 의미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표현이므로, '綠'의 의미 확장 방향을 개관할 수 있다. 둘째, 사전에 등재되지 않았지만 실제 언어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헐후어・속담 등의 관용 표현[2]을 분석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새로운 사회문화적 경험과 인지 방식을 반영하므로, '綠'의 의미가 시대별로 어떻게 확장되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2장에서는 사전에 수록된 '綠' 관련 어휘를 분석하여 개념 은유의 범주를 도출하고, 3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시대순에 따른 관용 표현에서의 은유 의미 변화를 고찰한다.

---

1) 헐후어는 앞 구절만 말하고 실제 하고 싶은 말은 뒷 구절에 붙이는 형식으로 상대방이 뒷 구절을 추측하게 만드는 중국 특유의 전통 유머성 수수께끼식 표현이다.

2) '관용 표현'은 연구 목적에 따라 명칭이 달라질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비유성, 풍자성, 교훈성을 담는 '속담', '헐후어' 등 고정 구조를 갖춘 구문에 대해 '관용 표현'으로 칭하고자 한다. (김혜령, 「속담 기반 표현의 특성」, 『한국어 의미학』 54, 2016, 203-229면)

2. ‘綠’의 사전적 의미와 개념 은유

중국어 색채어 ‘綠’은 고대 중국의 인지 체계 속에서 사물 명칭이 색채어로 분화된 전형적인 사례이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 ‘綠, 帛青黃色也(녹은 청황색 비단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綠’은 본래 독립된 원색이 아니라 청색과 황색이 혼합된 ‘간색(間色)’의 비단 빛깔을 의미했다.

『한어대자전(漢語大字典)(第2版)』(2010)[3]에서는 ‘綠’의 의미를 크게 세 가지 의미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풀과 나뭇잎이 무성할 때의 색깔로, 청색과 황색 염료를 배합할 때 나타나는 색’이다. 당대(唐代) 왕유(王維)의 《送別》에서 ‘春草年年綠(봄풀은 해마다 푸르른데)’와 같은 시구가 이를 잘 보여준다. 둘째, ‘녹색 잎(綠葉)’의 의미로, 송대(宋代) 이청조(李清照)의 《如夢令》 ‘應是綠肥紅瘦(아마도 잎은 무성하고 꽃은 여위었겠지)’에서처럼 붉은 꽃과 대비되는 잎 자체를 상징하는 용법이다. 셋째, ‘새까만 색(烏黑色)’으로, 당대 이백(李白)의 《古風五十九首》 ‘中有綠發翁(그 산중에 푸른 머리의 노인이 있어)’에서처럼 윤기 나는 검은 머리카락을 형용하는 데 쓰인다. 이처럼 ‘綠’은 초기에 식물의 무성한 상태를 나타내는 지엽적 의미로 존재하다가, 점차 자연계의 ‘식물 잎 색깔’이라는 개념으로 고착되었다.

비록 『설문해자』의 ‘帛青黃色也’라는 정의는 염색된 비단이라는 인공물의 색채를 기술한 것이지만, 그 색채 자체는 자연계에서 관찰되는 식물의 푸른빛으로, 애초에 자연물의 색이다. 『한어대자전』에서 ‘풀과 나뭇잎이 무성할 때의 색깔’을 첫째 의미항으로 제시한 것은, ‘綠’의 의미가 ‘비단의 인공적 색채’에서 ‘식물의 자연적 색채’라는 방향으로 확장된 것이 아니라, 자연물에 대한 색채가 비단·식물 등 매개물을 통해 기술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의미 변화는 현대 중국어 어휘를 수록한 『현대한어사전(現代漢語詞典)』(이하 『현한』)의 판본별 변화에도 반영되어 있다.[4] 2판(1983)에서는 ‘像

3) 본고에서 참고한 판본은 온라인에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2026년6월 현재 60,367개의 표제자가 수록되어 있다.(https://homeinmists.ilotus.org/hd/hydzd.php)

4) 본고에서는 1판을 찾아볼 수 없어 2판부터 7판까지를 비교하였다. 판본별로 비교하여 내용이 수정된 시기의 것만 예시로 보였다.

草和樹葉茂盛時的顏色 , 藍顏料和黃顏料混合即呈現這種顏色(풀과 나뭇잎이 무성할 때의 색과 같으며, 파란 안료와 노란 안료를 섞으면 이런 색이 나타난다)'라고 기술하였으나, 5판(2005)에서는 '顏料(염료)'라는 어휘를 삭제하고 '藍和黃混合而成(파란색과 노란색을 섞어 만든다)'으로 수정하였다. 이는 '재료의 혼합'이 아닌 '색채 자체의 혼합'으로 설명하여 정의의 정확성과 범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한』에 수록된 '綠'을 포함한 어휘는 총 67개('綠x' 33개, 'x綠y' 8개, 'x綠' 24개)로, '綠'이 지시하는 대상의 의미 영역을 기준으로 하여 (1) 색채 자체의 상태・정도를 나타내는 경우, (2) 자연물이나 구체적 사물을 지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적 기능이나 관습적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의 세 범주로 우선 분류하였다.

(1) 색채/상태 의미(25개)

綠茸茸(보송보송하게 새파란 모양), 綠生生(싱싱하게 푸른 모양), 綠茵茵(아주 푸르고 부드러운 모양), 綠瑩瑩(윤이 나고 푸른 모양), 綠油油(반드르르하게 푸른 모양), 碧綠(벽록색), 黛綠(검푸른 색), 嫩綠(연두색), 品綠(선명한 초록색), 靑綠(청록색), 新綠(신록), 草綠(풀색), 蔥綠(파빛의 푸른색), 翠綠(비취색), 豆綠(완두콩색), 果綠(청과색), 湖綠(호수색), 墨綠(먹록색), 水綠(담록색), 銅綠(동록), 橄欖綠(올리브 그린), 蘋果綠(사과색), 祖母綠(에메랄드색), 油綠(윤기가 흐르는 짙은 초록색), 花紅柳綠(꽃은 붉고 버들은 푸르다)

(2) 자연/식물/사물 의미(26개)

綠地(녹지), 綠洲(오아시스), 綠茶(녹차), 綠豆(녹두), 綠茵(푸른 잔디/풀밭), 綠菜花(브로콜리), 綠陰(녹음), 綠蔭(녹음), 葉綠素(엽록소), 葉綠體(엽록체), 綠燈(청신호/녹색등), 綠肥(녹비/풀 거름), 綠卡(영주권),[5] 綠帽子(녹모자[서방질하는 여자의 남편]), 綠皮書(그린 북), 綠頭巾(녹두건[서방질하는 여자의 남편]), 綠頭鴨(청둥오리), 紅綠燈(신호등), 紅男綠女(화려하게 옷을 입은 젊은 남녀), 金綠寶石(금록석)

5) '綠卡(영주권)'는 영어 'green card'를 의역한 근대 이후의 차용어로, '綠豆・綠茶・綠地'처럼 중국어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합성어와는 형성 경로를 달리한다. 다만 외래 개념을 번역하는 과정에서도 '안전/허가'라는 의미역에 대응하는 색채소로 '綠'이 선택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綠'의 의미 확장 양상을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본고에서는 이를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3) 기타(16개)

綠化(녹화), 綠視率(녹시율), 綠色(녹색), 綠色壁壘(녹색 장벽[환경 무역 장벽]), 綠色標志(녹색 마크[친환경 인증]), 綠色食品(녹색 식품[친환경・유기농 식품]), 綠色通道(신속 절차), 燈紅酒綠(등불은 붉고 술은 푸르다[사치스럽고 방탕한 유흥가 풍경]), 飄綠(전반적 하락세), 開綠燈(청신호를 켜다[허가를 내주다]), 戴綠帽子(아내가 바람이 나다), 花花綠綠(울긋불긋 화려하다)

이들 어휘에서 '綠'은 단순히 색을 표시하는 기능을 넘어, 결합 성분의 의미 범주를 유지하면서 대상의 속성을 나타내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綠'이 독립적인 의미 범주를 형성하기보다는 결합 성분의 의미를 구체화하거나 한정하는 방식으로 어휘 형성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다만 이 세 범주는 사전 표제어 전체의 의미 분포를 개관하기 위한 일차적 분류로서, (2)에는 '綠x'와 'x綠' 형태의 어휘 중 명확하게 사물을 지시하는 것만 포함시키고, 그 외의 것은 (3)으로 분류하여 (2)와 (3)의 두 범주의 경계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점을 밝혀 둔다.

이와 같이 사전에 수록된 '綠' 관련 어휘를 바탕으로, 인지언어학의 개념 은유 이론을 적용하면 구체적인 색상이라는 근원 영역이 인간의 인지 과정을 거쳐 어떻게 다양한 목표 영역으로 매핑되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6] 본고에서는 北京語言大學의 BCC(BLCU Corpus Center) 코퍼스[7]를 활용하여 사전에 수록되지 않은 '綠' 관련 어휘도 수집하여 그 은유 의미를 검토하고,[8] 이를 아래 [표1]과 같이 다섯 가지 개념 은유 범주로 분류하였다.[9]

---

6) 徐鵬飛・田興斌(2020)에서는 '綠'이 '사회 등급'(綠衫:녹색 관복), '긍정적 감정'(軍綠:군록(색)), '부정적 감정'(綠帽子:서방질하는 여자의 남편), '안전'(綠色食品:친환경 식품), '시간・계절'(綠肥紅瘦:푸르름은 짙고 붉음은 옅다), '청춘'(嫩綠:연녹(색)), '허가'(綠色通道:신속 절차) 등으로 투사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徐鵬飛・田興斌, 「'綠'的隱喻研究」, 『今古文創』 15, 2020, 63-65면)

7) '漢語在線語料庫'(중국어 온라인 말뭉치)의 총 자수는 약 62억이며, 당대 사회 언어 생활의 여러 영역을 포괄한다. 신문(약 19억 자), 문학(약 2억 자), 구어(약 2억 자), 근대한어(약 15억 자), 고대한어(약 16억 자), 그 외 약 7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https://bcc.blcu.edu.cn/)(2026년3월 현재)(荀恩東・饒高琦・肖曉悅・臧嬌嬌. 「大數據背景下BCC語料庫的研制」, 『語料庫語言學』 3(01), 2016, 93-109・118면)

8) 이번 연구에서 수집된 언어 자료는 은유 의미 분석을 위주로 진행하여 통계 수치는 분석하지 않았다.

9) 'x綠' 형태 중에서 碧綠(벽록)・翠綠(선명한 초록) 등 색채 분화를 나타내는 어휘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 1〉 '綠'의 개념 은유

목표영역	범주	예시
자연 (식물/환경)	식물・자연의 생명력	綠水(푸른 물), 綠柳(푸른 버드나무), 綠雲(녹운[여인의 검고 풍성한 머리카락]), 綠水靑山(녹수청산[아름다운 자연경치]), 綠野(푸른 들판), 綠原(푸른 벌판), 綠洲(오아시스), 綠茵場(푸른 잔디 구장/축구장) 增綠(녹지를 늘리다), 護綠(녹지를 보호하다), 植綠(나무를 심다), 愛綠(녹지를 사랑하다), 播綠(씨앗을 뿌리다), 綠化(녹화하다)
안전/통과	허가・승인 ・우선 통과	綠燈(청신호/녹색등), 綠卡(영주권), 綠證(녹색인증[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綠皮書(그린 북), 綠色通道(신속 절차)
낮은 신분	사회적 위계 ・도덕적 금기	綠衣(푸른 옷[과거 우체부나 천한 신분의 옷]), 綠袍(하급 관리가 입던 푸른 도포), 綠頭巾(아내가 바람피운 남자), 戴綠帽子(아내가 바람이 나다)
하락/손실	경제적 손실 ・주가 하락	綠盤(하락장), 飄綠(전반적 하락세), 收綠(하락세로 마감하다), 滿屛綠(전종목 하락)
불안/분노	심리적 감정 투사	綠臉(낯빛이 흙빛이 되다[화나거나 질린 얼굴]), 眼睛盯綠啦(눈이 퍼레지다[독하게 노려보다]), 紅是相思綠是愁(붉은색은 그리움이요 푸른색은 시름이라)

위 표의 분류 기준에서 보듯, '綠'의 의미 확장 가운데 일부는 엄밀히 말하면 개념적 은유가 아니라 개념적 환유의 기제에 가깝다. 예컨대 관복의 색으로 관직 등급을 나타내는 용법이나 안색의 변화로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용법은, 색채와 지시 대상이 하나의 인지 영역 안에서 인접・부분-전체 관계를 이루는 환유적 사상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綠'이 안전이나 허가와 같이 이질적인 영역으로 사상되는 경우는 근원 영역(색채)과 목표 영역(추상 개념) 사이의 유사성에 기반한 은유적 사상이 작동한다. 본고는 이 두 기제를 전면적으로 분리하기보다는, 색채어 '綠'이 관습적으로 특정 의미를 지시하게 되는 과정 전반을 '개념적 사상(conceptual mapping)'이라는 포괄적 틀 안에서 분석을 진행하였다.[10]

10) 김숙정・도원영・최경봉(2019)에서는 모든 개념적 은유가 환유에 기초하며,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면이 있음을 지적하였다.(김숙정・도원영・최경봉, 「은유의 범주와 유형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관점에서-」, 『겨레어문학』 62, 2019, 227-228면)

이러한 관점에서 각 범주의 의미 형성 과정을 사전 수록 양상과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록은 자연/식물이다. 새싹, 나뭇잎, 풀 등 자연계 식물이 지닌 색상이라는 근원 영역이 '자연 환경'이나 '왕성한 생명력・성장'이라는 목표 영역으로 매핑된다. '綠+N'으로 결합된 '綠水(푸른 물)・綠柳(푸른 버드나무)・綠雲(녹운[여인의 검고 풍성한 머리카락])' 등은 색채 의미가 그대로 자연물을 수식하며, '增綠(녹지를 늘리다)・護綠(녹지를 보호하다)・植綠(나무를 심다)' 등 'V+綠' 구조에서는 '綠'이 식물・녹지를 나타낸다. '綠化(녹화하다)'는 '나무와 꽃・풀을 심어 환경을 아름답고 청결하게 만들다'라는 의미로 『현한』 초기 판본부터 수록되어 있어, 기본 의미인 '풀과 나뭇잎이 무성한 색'과의 연속성을 보여 준다.

둘째, 초록은 안전/통과이다. 교통 신호등의 초록불이라는 시각적 경험에서 비롯된 현대적 은유이다. 빨간색이 '정지/위험'을 뜻한다면, 초록색은 '안전하게 나아가도 좋다'는 목표 영역인 허가와 안심을 의미한다. '綠卡(그린카드[영주권])・綠色通道(녹색 통로[신속 절차])' 등 '綠+N' 또는 '綠色+N'의 구조로 실현된다. '開綠燈'은 『현한』3판(1996)에서 '比喩准許做某事(어떤 일을 허가함을 비유한다)'의 풀이[11]를 제시하며 독립 표제어로 처음 등재되어 그 의미가 완전히 관용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초록은 낮은 신분이다. 중국 전통 문화에서 '綠'은 황제의 '황색(黃)'이나 고위 관직의 '자색(紫)・적색(紅)'과 대조되는 천하고 낮은 신분을 상징했다. 오행설의 정색(正色)인 '靑'과 달리 간색(間色)에 속한다는 인식이 복식 제도와 결합하여, 당대에는 6・7품 하급 관리의 관복 색상으로 고착되었다.[12] '綠帽子(녹모자)'는 『현한』2판(1983)에는 수록되지 않았으나 『현한』4판(2002)에서 '綠頭巾(녹두건)'의 관련어로 처음 제시되었고, 『현한』5판(2005)에서는 '稱人妻子有外遇(含譏諷意)(어떤 사람의 아내가 외도하다는 뜻[비웃음을

11) 『현한』6판(2012)에서는 풀이가 '比喩准許做某事或爲某事提供方便(어떤 일을 허가하거나 편의를 제공함을 비유한다)'으로 더 상세하게 수정되었다.

12) 夏國榮, 「靑・綠・藍——漢語顔色詞文化意蘊探微」, 『語文天地』 11, 2000, 1-3면.

내포함])'으로 개정되어 비유적 의미와 화용적 의미가 함께 명시되었다.

넷째, 초록은 하락/손실이다. 미국 주식 시장과 달리 중국 증권 시스템에서는 하락을 녹색으로, 상승을 적색으로 표시한다. '綠盤(하락장)・飄綠(전반적 하락세)・收綠(하락세로 마감하다)・滿屏綠(전 종목 하락)' 등의 어휘가 이 범주에 속한다. '股市綠了(주가가 떨어졌다), 我買的股票被綠了(내가 산 주식이 떨어졌다)'처럼 동사 용법으로 문법화된 사례도 나타난다.

다섯째, 초록은 불안/분노이다. '綠臉(낯빛이 흙빛이 되다[화나거나 질린 얼굴])・眼睛盯綠啦(눈이 퍼레지다[독하게 노려보다])' 등에서와 같이 'N(신체)+綠' 구조이거나 '綠'가 동사화되는 용법이다. '紅是相思綠是愁(빨강은 사모이며 초록은 걱정이다)'처럼 '綠'이 심리 상태를 직접 지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심리적・감정적 의미는 현재 『현한』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이상 『현한』의 판본별 변화와 '綠'을 포함한 어휘에 대한 분석을 종합하면, '綠'의 의미 확장에는 일정한 방향성이 존재한다. 초기에는 식물의 색채를 나타내는 자연적 의미가 중심이었으나, 이후 자연에서 비롯된 사물과 제도, 다시 사회적 기능과 문화적 가치로 의미 영역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현한』은 이러한 의미 변화의 결과를 기술할 뿐, 그것이 어떠한 인지 기제를 거쳐 확장되었는지는 설명하지 않는다. 이 다섯 가지 개념 은유 범주는 형성 시기에 따라 다시 두 층위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식물'과 '낮은 신분' 범주는 『설문해자』의 어원적 정의 및 원・명대 이래의 관복 제도에 근거를 두고 있어 전통적・역사적 층위에 속하는 반면, '안전/통과'(교통 신호, 영주권 등)・'하락/손실'(주식 시장)・'불안/분노' 범주는 근현대의 사회 제도나 관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현한』에도 비교적 후대의 판본에서부터 등재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관용 표현을 통해 각 시기에 '綠'이 어떠한 인지 과정을 거쳐 의미를 확장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2장의 공시적 분류 체계가 3장의 통시적 전개 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결됨을 보이고자 한다.

3. 관용 표현에서 '綠'의 은유 의미

관용 표현은 사전적 의미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사회문화적 인식과 가치 평가를 담아낸다. 사전에 수록된 단어 단위 은유, 예를 들어 '綠帽子(녹모자)・綠盤(하락장)' 등은 '綠' 자체에 은유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나, '綠磚(녹색 벽돌)・綠葉(녹잎)'는 속담 전체 구조 안에서만 비유적 의미가 드러나며 해당 표현을 벗어나면 '綠'의 은유 의미가 사라진다. 따라서 관용 표현 전체 구조를 분석해야만 '綠'이 특정 발화 상황에서 어떠한 유사성의 인지를 통해 은유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때 특정 표현의 은유 의미를 '綠' 자체에 귀속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 관용 표현 전체 구조에서 형성된 것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綠帽子・綠頭巾'처럼 '綠'이 상이한 결합 성분(帽子, 頭巾 등 사물 관련 명사)과 결합하고도 '치욕・하급'이라는 유사한 은유 의미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綠' 자체에 관습적으로 은유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반면 '種綠豆'의 '綠豆' 또는 '牡丹雖好 , 綠葉扶持'의 '綠葉'처럼, 해당 의미(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성질, 보조적 존재라는 위상)가 결합 대상인 '豆・葉'이라는 지시물 자체의 실제 속성에서 비롯되고 다른 결합에서는 재현되지 않는 경우는, '綠' 단독이 아니라 관용 표현 전체의 구조적 맥락에서 형성된 의미로 구분하였다. 다만 이러한 구분이 모든 사례에 대해 명확히 이분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의 언어 자료는『중국 관용어 대전(中國慣用語大全)』과『중국 속담 대전(中國諺語大全)』,『중국 헐후어 대전(中國歇後語大全)』 총 3권에서 '綠'을 포함한 관용 표현을 모두 추출하였다. 이 사전들은 단어 단위가 아닌 구문의 형태로 표제어를 수록하고, 예시와 출전이 명시되어 있어 각 표현이 어느 시기에 형성된 것인지 확인하고 의미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 이에 원・명대, 청대, 근・현대의 시대순으로 관용 표현에 나타난 '綠'의 은유 의미 변화를 고찰한다.

1) 원・명대: 자연 속성에서 사회적 함의로의 전이

원・명대에는 '綠'이 식물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동시에, 간색(間色)으로서의 낮은 위상이 구체적인 사회적 신분 및 도덕적 수치와 결합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관용 표현은 크게 두 방향의 의미 전이를 보여 준다.

먼저 '綠'의 시각적 속성이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은유로 사용된 초기 사례가 등장한다.

(1) 綠豆皮兒一青退。(元・高文秀《遇上皇》, 1271-1285)
(녹두 껍질—푸른 기가 빠지다)
(2) 青山不老綠水長存。(《三國演義》六, 元末明初)
(푸른 산은 늙지 않고, 푸른 물은 영원히 흐른다)

위 예시(1)의 헐후어는 원대 초기에 생성된 것으로 '녹두 껍질의 색이 바래는 현상'을 '기세가 꺾이거나 물러나는 상태'[13]에 비유하였다. '綠'의 시각적 의미가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 초기 사례이다. 예시(2)는 같은 시기의 속담으로 '끊임없이 흐르는 물과 변치 않는 초록빛'으로 '자연의 영원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綠'의 긍정적 자연 이미지를 보여 준다.

한편 명대에는 '綠'이 사회적 주변부나 하급 지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구체화된다.

(3) 種綠豆 , 地不宜肥而宜瘦。(明・徐光啟《農政全書》, 1573-1620)
(녹두를 심을 때는 비옥한 땅보다 척박한 땅이 좋다)
(4) 懶漢種養麥 , 懶婦種綠豆。(明・王象晉《群芳譜・穀譜》, 1621)
(게으른 남자는 밀을 심고 기르며, 게으른 여자는 녹두를 심는다)
(5) 牡丹雖好 , 綠葉扶持。(明・顧起元《客座贅語》卷一, 1617)
(모란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푸른 잎이 받쳐줘야 한다)
(6) 帶綠帽兒。(明末・馮夢龍《醒世恒言》, 1627)
(녹색 모자를 쓰다)

13) '青退(푸름이 퇴색하다)'는 유사한 음의 '請退(물러나기를 청하다)'의 뜻으로 쓰인 것이다.

위 예시(3)과 (4)에서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녹두의 특성을 들어 수월하지만 가치가 낮은 것을 비유한다. 예시(5)는 핵심을 뜻하는 붉은 꽃을 빛내주는 조연이자 보조적 존재로서의 조연이나 하급 존재를 비유하는 것으로 '綠'을 명확히 규정한다. 이는 오행설에 근거한 위계적 인식, 즉 정색(正色)인 '靑'보다 낮은 간색의 위상이 자연물의 대비를 통해 사회적 질서로 투사된 결과이다.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도덕적 확장은 예시(6)에서 제시한 관용구이다. '아내가 외도하여 남편이 수치를 당하는 것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원・명대에 창기 가족에게 녹색 두건을 씌운 제도적 관습에서 비롯하여,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수치심을 상징하는 관습적 은유로 정착되었다. 구체적인 복식 정보가 사회적 위계와 도덕적 가치라는 추상적 목표 영역으로 사상된 것이다.

2) 청대: 신분 지표와 가치 위계의 고착

청대의 관용 표현에서 '綠'은 관직 등급을 나타내는 환유적 지표이자, 가치 낮은 사물을 지칭하는 부정적 은유로 고착되었다.

(7) 時文熟 , 秀才綠。(淸・褚人獲《堅瓠集》, 1691-1703)
(시문이 익으면, 수재가 녹색 (관복)이다)
(8) 丟了黃金抱綠磚。(淸・王有光《吳下諺聯》, 1820)
(황금을 버리고 녹색 벽돌을 안다)

위 예시(7)에서는 '녹색 관복에 해당하는 낮은 직급에 급제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녹색 관복에 해당하는 낮은 직급을 직접 지칭하여, 색채가 특정 사회 계급을 환유하는 기능을 수행했음을 보여 준다. 예시(8)은 '가치 있는 것을 버리고 질 떨어지는 것을 선택함을 비유'하는데, 가치 있는 황금과 대비되는 '질 떨어지는 것'으로 녹색 벽돌을 설정함으로써, '綠'에 '저품질'과 '열등함'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한편 원・명대 제도에서 비롯된 표현이 청대를 거치면서 더 이상 제도적 배경의 설명 없이도 이해되는 정착된 은유로 굳어지기도 했다.

(9) 綠帽子。(清・石天基《傳家寶》, 1879)
(녹색 모자)

위 예시(9)의 '綠帽子(녹모자)'는 19세기 말에 이르면 '你須要存些體面 , 我是不肯帶'綠帽子'的(네가 체면을 좀 지켜야 해. 나는 '바람'을 당할 생각이 없거든)'라는 문구에서처럼 쓰여 배우자의 외도를 의미하는 보편적 관용구로 완전히 자리를 잡는다.

이처럼 청대에는 원・명대에 싹텄던 '綠'의 사회적 의미가 관용 표현 속에서 더욱 공고해졌다. 색채가 신분과 가치 위계를 지시하는 환유적 지표로 기능하고, 도덕적 금기를 나타내는 강력한 은유로 자리 잡은 것이다.

3) 근・현대: 심리적 투사와 기능적 재개념화

20세기에 접어들면서 '綠'은 인간의 심리적・생리적 반응을 나타내는 생리적 환유의 수단으로 확장되는 한편, 현대 사회의 기능적 맥락에서 긍정적 의미를 새롭게 획득하게 된다.

우선 심리적 투사의 측면에서, '綠'은 강렬한 부정적 감정에 따른 신체 변화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

(10) 野求的臉又綠了。(老舍《四世同堂》, 1944)
(예추의 낯이 녹색이 되었다)
(11) 銅錢攥出綠水。(劉紹棠《運河的槳聲》, 1953)
(동전을 쥐어짜 녹물이 나오게 하다)

위 예시(10)에서 '臉綠了(낯빛이 사색이 되다)'는 공포・당황・분노 등 강렬한 감정으로 인해 안면 혈류가 수축하여 핏기가 가시는 신체 경험을

시각적 색채 정보로 투사한 생리적 환유 표현이다. 예시(11)의 '綠水(녹물)'은 구리 동전에 녹이 스는 시각적 이미지를 극심한 탐욕에 대한 비유로 활용하여 심리적 상태를 구체화하였다. 이러한 '신체나 사물의 변화'를 통한 '감정' 표현은 추상적인 내면 심리가 시각적 색채 정보로 투사되어 구체화된 것으로, 인간의 보편적 신체 경험이 언어에 반영된 양상을 보여 준다.

한편 1980년대 이후 '綠'은 긍정적 재개념화를 형성하게 된다.

(12) 完成綠化。(康濯《東方紅》, 1963)
(녹지화를 완성하다)
(13) 開綠燈 (巴金《關於〈激流〉》, 1980)
(초록불을 켜다)
(14) 打開綠燈 (張賢亮《河的子孫》, 1983)
(초록불을 켜다)

위 예시(12)는 '要全面治理，單只說全面完成綠化這一項，就還不知道得多少年哩！(전면적으로 정비하려면, 녹화만 완전히 완료하는 것만 해도 몇 년이 더 걸릴지 모르겠네!)'라는 문구에서 쓰인 관용 표현이다. 이처럼 식물의 무성한 생명력이라는 물리적 속성이 현대 사회에서 생태적 가치로 재개념화되기 시작하였다. 예시(13)과 (14)는 각각 다음과 같이 '馬上打開綠燈，還替他想方設法。(곧바로 초록불을 켜주고[승인을 해주고] 또 여러 방법을 모색해 주었다)・爭論不休以後，終於給小說開了綠燈。(논쟁 끝에 마침내 소설에 초록불을 켜주었다[출판/발표 승인을 내렸다, 통과시켰다])' 문구에 관용 표현으로 쓰였다. 이는 자연적 생명력이 지속 가능한 사회적 약속으로 구조화된 양상을 보여 준다.

그밖에 20세기 중반부터는 앞선 시기에 형성된 '綠'의 은유 층위가 그대로 계승되어 관용적 의미로 굳어진 양상도 확인된다. 시기별로 생성된 의미들은 각각 그 은유 의미를 현대까지 유지하고 있다.

(15) 你們頂好別跟他爲仇作對, 他是萬年青, 永遠是綠的。(老舍《方珍珠》, 1950)
(두 분은 그와 원수가 되어 맞서지 않는 게 좋겠어요. 그는 만년청처럼 영원히 푸르니까요[어떤 상황에서도 늘 살아남는다])
(16) 龍多旱 , 人多亂, 幾十戶人家搞到一起 , 怕出綠戲。(周立波《山鄉巨變》, 1958)
(용이 많으면 가뭄이 들고, 사람이 많으면 혼란스러운데, 수십 가구가 한데 모이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 걱정이야)
(17) 有得吃就吃 , 有得喝就喝 , 喝得面紅面綠 , 什麽事都好談。(陳殘雲《香飄四季》, 1963)
(먹을 게 있으면 먹고, 마실 게 있으면 마셔.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해질 때까지 마셔. 그러면 무슨 이야기든 잘 통할 거야.)

위 예시(15)의 '萬年青—永遠是綠的(만년청처럼 영원히 푸르다)'라는 관용 표현은 사철 푸른 식물인 만년청(萬年青)의 속성을 빌려,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치 않고 살아남는 강인한 생명력을 비유한 표현이다. 이는 2장에서 살펴본 자연/식물 범주의 개념 은유, 곧 식물의 무성한 색이 '왕성한 생명력'으로 매핑되는 근원적 의미가 근현대 구어 표현에서도 그대로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예시(16)에서 '出綠戲(초록색 옷을 입고 무대에 나선다)' 구문의 '綠'이 불길하거나 불미스러운 사태를 가리키는데, 이는 원・명대 이래로 '綠'에 누적되어 온 부정적・열등한 가치 평가가 '戲(연극)'이라는 추상적 대상에 투사된 것으로, 앞서 살펴본 '낮은 신분・열등함' 범주의 은유적 연장선에 있다. 예시(17)의 '面紅面綠(얼굴이 붉으락 푸르락하다)'는 '臉綠了'와 마찬가지로 안색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여기에서는 과음으로 인한 취기를 신체적・생리적 상태로 나타내는 생리적 환유 표현이다. '紅'과 '綠'을 대비적으로 결합하여 안색이 시시각각 변하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강조한다. 이처럼 세 예시는 서로 다른 목표 영역인 자연적 생명력, 사회적 가치 평가, 신체적 감정 반응이라는 의미가 근현대 텍스트에서 공존하며, 각 시기에 생성된 의미 층위가 소멸하지 않고 누적되고 계승되어 온 '綠'의 의미 확장 양상을 잘 보여 준다.

종합하면 관용 표현에서 '綠'의 은유 의미는 물리적 근원 영역(자연・식물의 색채)에서 출발하여,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회적 신분과 도덕적 금기, 시각적 대비를 통한 가치 위계, 심리적 감정 상태, 그리고 현대 사회의 기능적

허가와 생태적 가치라는 목표 영역으로 순차적으로 확장되어 왔다. 앞서 사전 기반 분석이 단어 단위에서 '綠'의 개념 은유 체계를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관용 표현 분석은 구(句) 층위에서 '綠'의 은유 의미가 실제로 어떻게 실현되고 고착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綠葉(녹잎)'이나 '綠磚(녹색 벽돌)'처럼 단어 단위만으로는 '綠'에 은유 의미를 귀속시키기 어려운 경우에도, '牡丹雖好 , 綠葉扶持'나 '丟了黃金抱綠磚'과 같은 관용 표현 전체 구조 안에서는 '綠'과 대비되거나 결합하는 다른 성분과의 관계를 통해 비로소 은유 의미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즉 관용 표현은 색채어 '綠'의 은유 의미가 개별 어휘의 차원을 넘어 담화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고 전승되어 온 과정을 포착할 수 있는 층위이다. 이는 색채어의 은유 의미가 어휘 목록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특정 사회문화적 경험과 인지적 유사성의 포착을 통해 구조적으로 생성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4. 결론

본 연구는 중국어 색채어 '綠(lǜ)'가 포함된 어휘와 관용 표현을 통하여 색채어가 지닌 사전적 본의가 사회문화적 확장 의미로 변화하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綠'은 구체물(비단, 식물)의 속성이라는 근원 영역에서 출발하여 사회적 계급, 도덕 관념, 심리 상태, 기능적 허가라는 목표 영역으로 끊임없이 확장되어 왔다. 특히 '帛青黃色也(청황색 비단)'라는 어원적 정의나 '식물의 빛깔'이라는 원형적 사전 의미에서 출발하여, 원·명대의 사회제도와 결합한 신분 지표, 청대의 도덕적 금기, 근현대의 심리적 감정 투사, 그리고 현대 사회의 환경 보호와 기능적 허가로 이어지는 의미 전이의 궤적이 관용 표현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2장의 사전 분석을 통해서는 '綠'의 개념 은유가 크게 자연/식물, 안전/통과, 낮은 신분, 하락/손실, 불안/분노의 다섯 범주로 체계화됨을 확인하였다.

3장의 관용 표현 분석을 통해서는 이러한 개념 은유가 특정 시대의 제도적 맥락과 사회적 관습을 거쳐 관용화되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특히 단어 단위 층위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綠葉(녹잎)·綠磚(녹색 벽돌)' 등의 은유 의미가 관용 표현 전체 구조 안에서만 추론할 수 있음을 포착하였다.

본 연구는 문학적 시어에 편중되었던 기존 색채어 연구를 구어적 관용 표현으로 확대함으로써, 중국인의 인지 체계 속에 내재된 색채 관념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중국어를 제2언어로 학습하는 학습자가 색채어의 은유적인 의미를 개념적 연결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활용 방안의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김숙정・도원영・최경봉,「은유의 범주와 유형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관점에서-」,『겨레어문학』 62, 2019, 221-249.
김혜령,「속담 기반 표현의 특성」,『한국어 의미학』54, 2016.
최경봉,「은유 표현에서 단어의 선택과 해석 원리」,『한국어 의미학』7, 2000.
_____,「은유 표현에서 어휘체계의 의미론적 역할」,『한국어학』15, 2002.
_____,「어휘의미망에 대한 인식과 사전의 구성」,『동양학』86, 2022.

謝婷娟,「現代漢語顏色詞附加義研究——以顏色詞"綠"爲例」,『文化創新比較研究』15, 2023.
徐鵬飛・田興斌,「"綠"的隱喻研究」,『今古文創』15, 2020.
徐彩玲,『古詩詞中"綠"顏色組合詞的文化解析』, 雲南師範大學碩士論文, 2008.
荀恩東・饒高琦・肖曉悅・臧嬌嬌.「大數據背景下BCC語料庫的研制」,『語料庫語言學』3(01), 2016.
張琳麗,「顏色詞"綠"詞語演變分析」,『文化學刊』12, 2020.
張少華,『基於語料庫的漢語顏色詞"綠"的研究』, 上海交通大學碩士論文, 2016.
張旺熹,「色彩詞語聯想意義初論」,『語言教學與研究』3, 1998.
祝 瑤,「詩歌中"綠"水"青"山譯法的認知範疇化研究」,『湖南工業職業技術學院學報』2, 2012.
夏國榮,「青・綠・藍——漢語顏色詞文化意蘊探微」,『語文天地』11, 2000.

〈공구서〉
溫端政主編,『中國慣用語大全』, 上海辭書出版社, 2004.
_____,『中國諺語大全』, 上海辭書出版社, 2004.
_____,『中國歇後語大全』, 上海辭書出版社, 2004.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現代漢語詞典(第2-7版)』, 商務印書館, 1983, 1996, 2002, 2005, 2012, 2016.
漢語大字典編輯委員會,『漢語大字典(第2版)』, 四川長江出版集團, 1990(https://homeinmists.ilotus.org/hd/hydzd.php 2026년 6월 현재).
许慎撰・段玉裁注,『说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 1988.
BCC(BLCU Corpus Center), '漢語在線語料庫', 北京語言大學. (https://bcc.blcu.edu.cn/ 2026년 3월 현재).

【Abstract】

An Analysis of the Metaphorical Meaning of "綠" (Green) Implied in Chinese Idioms

Chang, Sun-woo*

This study analyzes the metaphorical meaning of the Chinese color term "綠 (lǜ, green)" as it appears in idiomatic expressions and examines its semantic extension. The analys is is conducted on two levels. First, based on the theory of conceptual metaphor in cognitive linguistics, a review of "綠"-related lexical entries in successive editions of the『Modern Chinese Dictionary』revealed five conceptual metaphor categories: 'nature/ plants', 'safety/passage', 'low status', 'decline/loss', and 'anxiety/anger'. Second, by analyzing idiomatic expressions extracted from『The Comprehensive Collection of Chinese Idioms』and『The Comprehensive Collection of Chinese Proverbs』,『The Com prehensive Collection of Chinese Xiehouyu』, were analyzed chronologically from the 'Yuan'(元) and 'Ming'(明) dynasties through the 'Qing'(淸) dynasty to the modern and contemporary periods. By examining the specific sociocultural contexts and cognitive perceptions of similarities across these eras, this study traces how 'green' acquired and solidified its metaphorical meanings.

One of the key findings of this study is that expressions such as 'green leaves'(綠葉) and 'green brick'(綠磚)—from which a figurative meaning cannot be derived from the word 'green'(綠) alone at the lexical level—leveal a clear figurative meaning only within the overall structural context of the idiomatic phrase. This demonstrates that the metaphorical meaning of color terms is not a fixed entry in a lexical list, but is structurally generated and conveyed through the discursive context.

Keywords: color terms, 綠(green), conceptual metaphor, idiomatic expressions, semantic extension

접수일: 2026.06.30. ‖ 심사일: 2026.08.07. ‖ 게재확정일: 2026.08.14.

* Korea Univ.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Research Professor.